

# 갈짚선택, 생산성보다 원료확보에 좌우 된다.

□ 취재/이유혁 기자

**육**계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과거보다도 더 생산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계사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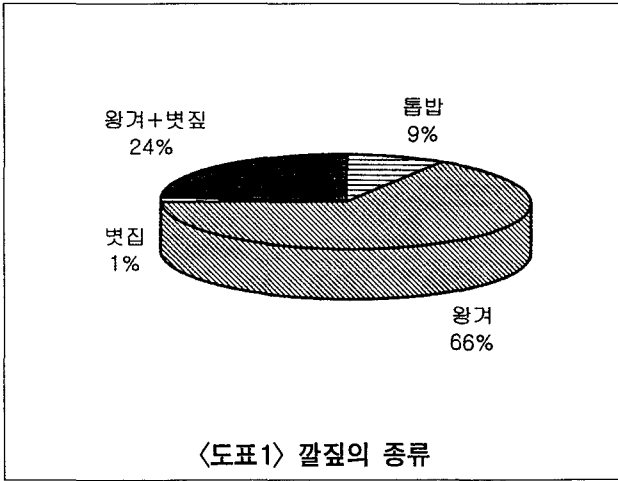
질병 발생률이 워낙 높아 사육중 높은 폐사와 증체불량, 조기 출하로 농가에서는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육계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갈짚의 사용실



태와 유통 등을 알아보하고자 70개농장을 대상으로하여 실상을 조사하였다.

## 1. 갈짚의 종류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갈짚은 톱밥, 왕겨, 벼짚, 소나무껍질, 옥수수속대, 대팻밥 등과 같이 한 가지로 쓰는 것과 왕겨와 벼짚을 같이 섞어



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는 깔짚의 종류는 왕겨가 66%, 톱밥이 9%, 벳짚이 1%와 왕겨와 벳짚의 혼합형이 24%로 조사가 되었다.

### 2. 깔짚의 구비 조건

깔짚은 우선 경제적이어야 하며, 깨끗하여야 하고, 흡습성이 좋아야 하며,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또한 가벼워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온성이 있어야 하고, 냄새가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깔짚이라 할 수 있다.

### 3. 사양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깔짚

사양가들이 사용하여 본 깔짚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좋다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사양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깔짚이 경제적으로나 편리성 면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깔짚을 구분하여 볼 때 사용하기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벳짚 - 보온성이 좋아 초생추를 입식 하였을 때에 어린 병아리의 성장에 좋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② 왕겨 - 값이 타 깔짚에 비하여 싼 편이고 흡습력이 나 무로 된 것보다는 약하지만

고 보는 것은 벳짚 (66%)> 왕겨 (15%)> 톱밥 (13%)> 대팻밥 (6%)의 순으로

그 외의 깔짚보다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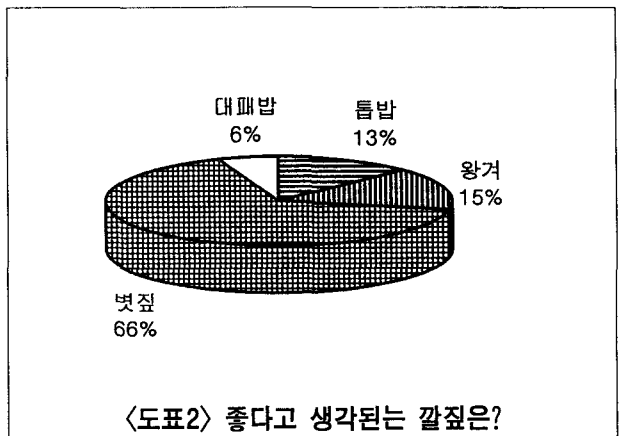
③ 톱밥 - 가격은 다른 깔짚보다 다소 비싸지만 흡습력이 뛰어나고, 연속 입추를 하면 발효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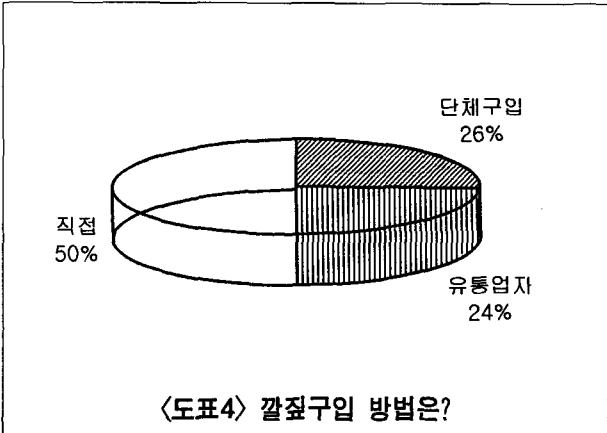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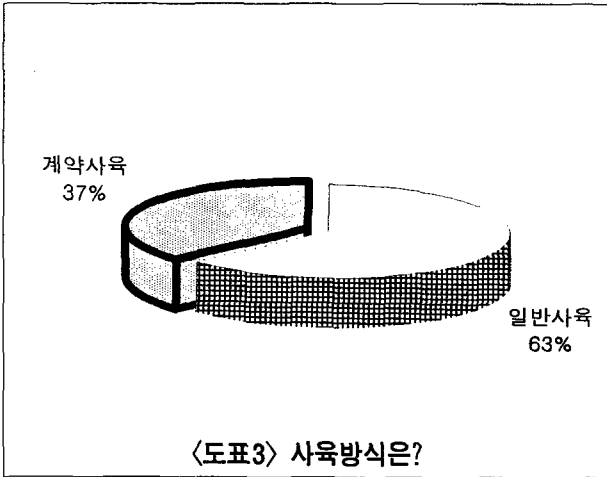
④ 대팻밥 -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지만 통기성이 좋고, 흡습성도 톱밥과 비교할 수가 있을 만큼 육계성장애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구입방법

사육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양가가 직접 사육에서 판매까지 하는 일반사육이 63%였고, 계열주체와 손을 잡고 하는 계약사육이 37%로 나타났다.

육계 사양가들이 깔짚을 구입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기 장·단 점이 있 다. 산지 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사양가들 이 원하는 깔짚을 구입 할 수 있고, 분 회나 계우 회에서 구입하는 경 우는 계우 회나 분회

의 회원들이 모두 알아서 처리 를 하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유통상을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산지가 보다 약간 비싸게 살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거래를 하면 훨씬 좋은 깔짚을 구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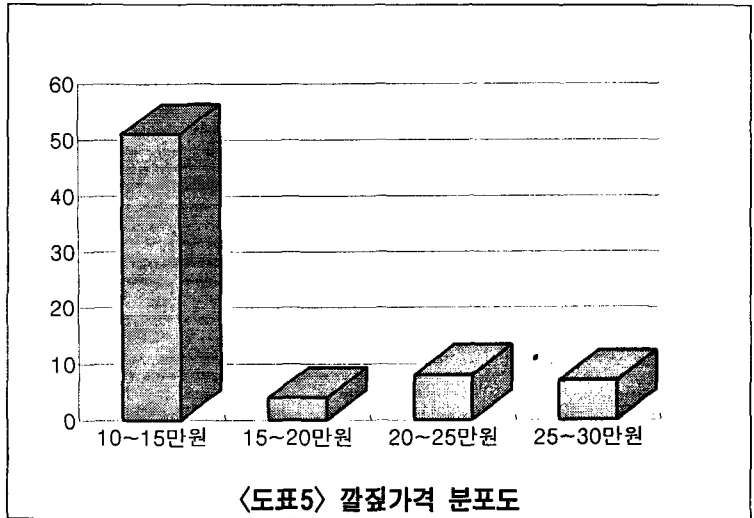
**5. 깔짚의 가격**

깔짚의 가격은 그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조사시 2.5톤 트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왕겨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톱밥은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나타났으며, 벧짚은 25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벧짚과 왕겨를 혼합한 것은 22만원 정도였다.

첫째로 사양가들이 직접 산지에 가서 구입을 하는 방법이 50%고, 둘째는 계우회나 분회를 통하여 단체로 구하는 방법이 26%였고, 마지막으로 유통업자를 통하여 구입하는 방법이 24%였으나 계약사육을 하는 곳에서는 계열주체가 깔짚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에서 지적이 되었다.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은 제각



또한 이것을 가격대로 보면 10~15만원대가 73%, 15~20만원 대가 6%, 20~25만원 대가 11%, 25만원 이상이 10%로 나타났다.

현재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대팻밥은 약 5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농장은 조사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같은 깔짚이라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1만수를 사육할 경우 대개 평균이 17~18만원 선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대로 판매하는 곳에서 평균적으로 왕겨의 가격은 포대당 700~800원, 대팻밥은 1,700~1,800원으로 나타났다.

## 6. 깔짚 생산·유통상의 문제점

문제점이라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종류와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각 깔짚의 위생상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왕겨는 정미소에서 정부미를 생산하느냐 아니면 일반미를 생산하느냐에 따라 먼지의 함유량에 많은 차이가 있고,

어디에서 무엇을 사든지 유통업자를 통하여 구입을 하면 잘 아는 곳은 싼값으로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한 유통업자를 만나면 바가지를 쓰는 경우도 왕왕 있다.

또한, 현재 국내로 유입된 수입 쌀의 영향으로 정미소에서 도정을 하지 않고 있어 왕겨의 가격이 많이 높아진 상태이다.

뜯밥은 국산 목재의 부족으로 외국에서 많은 양의 목재를 수입하는 관계로 인하여 외래성 해충과 질병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고, 수입해서 들어오는 만큼 약품처리를 해서 국내에 반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래성 질병과 약품의 냄새로 인하여 육계의 증체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폐사율도 높아져서 생산성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뜯밥의 입자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발효를 할 때에 입자가 너무나 고우면 통기가 안되어 계분이 부패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발효가 된다고 해도 부패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벼짚은 먼지의 함유량이 많아서 호흡기 계통의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벼짚의 유통은 한시적으로 나타나서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많은 양의 벼짚이 논바닥에서 그냥 태워져서 거름으로 되어지고 있을 만큼 활용도가 낮다.

대팻밥은 현재 생산을 하는 곳이 적어 구입하기 힘들어 사용하는 농가가 드물며 그나마 대팻밥을 사용하는 농가의 대부분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건비 상승, 인력난 등을 감안할 때 육계사의 깔짚공급 방안이 속히 모색되어야 할 단계에 와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 7. 맺음말

취재를 한 바로는 깔짚의 영향으로 질병발병율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 깔짚을 얼마나 좋은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은 차이가 많이 난다.

항상 질 좋은 깔짚을 선택하고, 원활한 공급이 되도록 유통체계를 만들어 깔짚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양기**